한국불교 세계화 이끌 '국제포교불교大' 출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3월 28일
국제포교불교대학 첫 입학식
선명상과 템플스테이학과 등
심화과정 3개 · 기본과정 2개 개설
1기 88명 입학…1년 과정 실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3월 28일 '국제포교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1기에 88명은 1년간 불교영어통번역 등을 수학하게 된다.

조계종의 정식 인가를 받은 최초의 외국어 전문불교대학인 국제포교불교대학(학장 덕림 스님)이 첫 신입생을 받고 활동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3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UIDI 국제포교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 포교 인재 양성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국제포교사회 부설 교육기관으로 출범한 국제포교불교대학은 외국어 기반의 체계적인 불교 교육을 통해 'K-Dharma'를 세계에 전할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1년 과정으로 불교영어통번역학과(54강), 선명상과 템플스테이학과(54강), 불교문화와 행사학과(54강) 등 3개 심화과정과 함께 불교영어반(입문/기초/중급-30강), 불교일어반(기초-10강) 등 2개 기본과정이 개설됐다.

초대학장에는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장 덕림 스님이 추대됐다.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이 운영위원장을, 연등국제선원 주지 혜달 스님이 교수대표를 맡았다. 정형은 사카디타 코리아 공동 대표, 정목동 부경대 명예교수, 김연금 동양대 교수, 신대현 능인대학원대 교수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1기에는 88명이 등록했다. 국제포교불교대학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참여형 교육과 외국어·불교 교과의 균형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 포교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과 협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며 수업의 70%가 외국어로 진행된다.

입학식에서 국제포교불교대학장 덕림 스님은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원활한 국제포교를 위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세계 중생의 이익을 위해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 자리는 한 학교가 문을 여는 것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로 전하는 원대한 서원의 시작"이라고 감격을 전했다. 스님은 이어 "배움의 길 위에서 때로는 즐겁고 어려우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라며 "그 모든 가정은 참된 포교사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정진 또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 포교는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기도 한 정무 스님은 "앞으로 국제포교불교대학은 불교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이라면서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사명을 이어갈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

조규태 국제포교불교대학 운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향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여러분은 종단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 외국어 전문 불교대학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주인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외국어 중심의 학습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용맹정진으로 수행과 배움을 이어간다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포교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는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같은 날 오후 제17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도 개최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총 20개 팀이 실력을 겨뤘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타카를 배우고 영어로 표현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 불교박람회 개막

"전통+현대로 불교 문화 새 장"

'힙불교' 열풍으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박람회)'가 4월 2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막을 올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장 원허 스님)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통문화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다움의 뿌리이자 지속 가능한 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토대"라며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K-불교'와 'K-전통문화'가 세계인과 만나는 신한류 문화를 만드는 축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차주 상보〉

김내영 기자

진관사 주지에 법해 스님 재임

4월 1일, 진우 스님 임명장 전달



조계종 직할교구 진관사 주지에 법해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법해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진관사가 수행과 포교, 교육, 전통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불교 포교의 모범 사찰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회주 계호 스님과 법해 스님 등 진관사 사부대중이 모범적으로 사찰 운영을 이어온 만큼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진관사는 사찰의 기능은 물론 국가적 영빈관 역할을 하고 있어 종단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사찰"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모범적인 면모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식 때 말씀하신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을 이끌겠다. 1700년 불교 전통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을 이끌겠다'는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진관사가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봉녕사 하루 출가로 행복통장 채웠어요"

3월 28~29일, 제4회 팔관재계
18명 동참 · 계 지키며 수행 생활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의 팔관재계 수계식 모습.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4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봉행했다. 팔관재계는 사찰에서 하루 동안 여덟 가지 출가계를 지키며 해탈 열반의 인연을 심는 수행법이다.

1박 2일간 열린 법회에는 재가불자 18명(우바새 3명·우바이 15명)이 참가해 출가자의 삶을 경험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수행을 통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입을 모았다.

수행 일정 전반에 대한 만족감도 높았다. 참가자들은 "새벽 4시 기상과 예불, 108배 수행이 힘들면서도 뿌듯했다", "수계식의 장엄함과 관정 수계, 산화 의식이 큰 감동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불식이 걱정됐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연 속 바람과 새소리, 새벽 공기가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팔관재계 수행법회가 3개월마다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정진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이번 수행을 통해 마음의 행복통장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봉녕사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031-242-5412 김내영 기자



중신회 중국 순례 '선종 뿌리 찾아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3월 21~27일 진행한 '2026 중앙신도회 임원 중국 성지순례'를 원만히 회향했다. 순례에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제28대 선임직 부회장,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대표자 등 50여 명과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함께했다. 소림사를 시작으로 삼조사, 사조사, 오조사 등 선종의 법맥을 잇는 조사도량과 남악형산 일대 수행처를 거쳐 육조 혜능 대사의 남화선사와 광저우 지역 사찰에 이르기까지 중국 선종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김부겸에 '지도자 의지' 강조

4월 1일 대구시장 출마 포부 밝혀
진우 스님 "충분한 역할 할 것"



6·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 포부를 밝혔다. 진우 스님은 "지도자의 방향과 의지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4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대구에서 19대 총선(대구 수성구갑),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이변을 일으킨 바 있는 김 전 총리는 3월 30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구 재도약'을 외치고 있다.

진우 스님은 김 전 총리에게 "큰 결단을 내렸다"면서 "국가 운영의 중심에 있었던 경험을 잘 살린다면 대구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구는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도시이자 불교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라면서 "팔공산과 갓바위, 동화사, 은해사 등 불교문화로 시민들도 불교 DNA를 지니게 됐고, 자비심과 자리이타 정신이 자연스럽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마음을 이끌어내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적인 부분들을 살펴야 한다"면서 "지도자의 방향과 의지가 중요한 때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가 전통문화 역사가 깊은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불교계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중심 역할을 해 온 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다른 선택의 기회를 대구시민들에게 주겠다는 결심으로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면서 "지금껏 대구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제12기 대원청년 불자·동아리상 시상식

진흥원 112건 2억4200만원 지원
12기 기관 · 단체 지원 공모도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원청년 불자·동아리상 제12기 시상식이 개최됐다.

3월 27일 진흥원 대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수상자와 수상단체 회원 65명과 법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제12기 불자·동아리상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인원이 선발됐다. 불자상에는 대학생 17명·대학원 3명(총 20명)이, 동아리상에는 초등학교 2곳·중학교 12곳·고등학교 11곳·대학교 63곳·대학원 4곳(총 9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자상 수상자인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각 3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으며, 선정 초등학교 동아리에 50만원, 중·고등학교 불교 동아리에 각 150만원, 대학교·대학원 불교 동아리에 각 150만원이 전해졌다. 또한 선정된 모든 불교 동아리 지도 교수(교사)에게도 별도로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제12기 불자·동아리상에는 총 112건 2억4200만원 지원금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구상진 이사장은 "청년 불자와 지도자 여러분의 정진이 곧 한국 불교의 희망찬 미래"라며 "청년불자 수상자들이 신행 생활에 새로운 용맹정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제12기 불교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3월 31일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불교 신행실천 △불교 학술 세미나 및 학술지 발간 △불교문화행사 △불교복지 △불교 포교 △불교 미디어포교 분야 57개 단체가 선정돼 총 1억4900만원이 지원됐다.

신중일 기자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으로

3월 27일, 정기이사회서
정관 일부 개정 만장일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부재로 존폐 기로에 섰던 나눔의집이 향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추모 공간으로 기능을 이어간다.

나눔의집은 3월 27일 2026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향후 법인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에는 사회복지관, 노인의료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지원 및 운영 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눔의집은 지난해 9월, 거주 할머니가 병세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입소자 부재로 휴지결정을 내린 바 있다. 휴지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면 불가피하게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로부터 역사관과 추모공간 운영만으로도 사회복지법인 유지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또 관련 시설 운영 적법성에 대한 해석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 정관 일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신임이사로 덕림 스님을 선임했다.

임은호 기자